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기차역 등서 신권 교환하세요”

주요은행, 오늘부터 이동점포 운영
신권교환·ATM 이용 등 금융업무
공항내 은행 환전소 연휴내내 오픈

은행권이 귀성객이 집중되는 오는 23~24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역 거점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이 가능하다. 주요 공항에서도 국내외 여행객을 위해 환전소를 휴무 없이 운영한다.

◆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주요 은행들은 차량 귀성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23~24일 양일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동점포에서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23~24일 이틀 동안 서해안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출국장.

/인천공항공사

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연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권교환 및 ATM을 이용한 금융업무를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23~24일 양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만남의광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운영시간내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23~24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출점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신권교환 및 ATM 이용 거래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23~24일 양일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ATM을 이용하거나 신권을 교환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23일 하루 동안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덕평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설치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23~24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양일간 신권교환 및 ATM 금융업무를 운영한다.

전북은행은 23일 하루 동안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마곡사지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 기차역·공항·관광지 이동점포 운영
i뱅크는 기차로 이동하는 귀성객을

위해 서대구역·동대구역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두 이동점포 모두 23~2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및 ATM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지역 축제인 '영광 상사화 축제'에 이동점포를 지원한다. 이동점포는 24~27일에 걸쳐 4일 동안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업무를 진행한다.

연휴 기간 동안 입·출국하는 고객을 위해 공항내 은행 환전소도 휴무 없이 운영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은 인천공항에서 환전소를 휴무일 없이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김포공항 및 청주은행 출국장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부산은행과 i뱅크도 김해공항, 대구국제공항에서 각각 환전소를 휴무 없이 운영한다. 제주은행도 제주국제공항 환전소를 연휴기간 내 운영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고신용자 5명 중 1명, 은행 신용대출 '거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규제 강화
상반기 KB국민 등 시중은행 3곳
신용 900점 신용대출 거절률 19.7%
2021년 6.6%... 5년새 3배 급증

은행 신용대출 시장에서 '신용점수 900점'의 문턱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출이 무난했던 고신용자조차 최근에는 5명 중 1명꼴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거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6.6%에 불과했던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거절 비중은 최근 20% 안팎까지 치솟았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신용점수 상향 평준화, 이른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높은 신용점수가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점수 900점 이상 차주의 신용대출 신청 거절률은 19.7%로 집계됐다. 2021년 6.6%에 불과했던 거절률이 5년 새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9%였던 거절률은 올해 상반기 19.7%로 6.8%포인트 뛰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고신용자의 대출 문턱까지 높은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고신용자 5명 중 1명꼴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거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하기 위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점수가 높더라도 소득과 기존 부채, 상환능력 등을 보다 까다롭게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만큼 과거보다 대출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같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고신용자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점수의 상향 평준화, 이른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한승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

기 신용평가 대상자 가운데 신용점수 900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에 달했다. 사실상 절반이 고신용자로 분류되면서 높은 신용점수만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가려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은행들이 소득과 부채 수준 등 다른 심사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따지면서 900점을 넘고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계부채 조이기가 금융권에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h수협은행, 차기행장 추석 이후 선출

차기 수협은행장 선임 절차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차기 행장 후보가 신학기 현 수협은행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압축된 가운데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추위는 차기 은행장 선임 논의를 추석 이후에 다시 재개기로 했다.

최종 은행장 후보를 두고 행추위의 표심이 3대 2로 갈리면서다. 신 행장은 중앙회 측 위원 2명과 정부 측 위원 1명의 표를 얻었으며, 이 원장은 나머지 정부 측 위원 2명의 표를 얻었다.

한편, 후보자가 최종 행장 후보에 선정되기 위해 행추위 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협은행 행추위 위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



Sh수협은행 전경.

/Sh수협은행

수산부에서 각각 추천하는 정부 측 인사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미래에셋생명, ETF AI MVP 누적수익률 62%

AI 활용 주식·채권 포트폴리오 구성

미래에셋생명은 인공지능(AI) 신호와 로직을 바탕으로 안정적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펀드 중 'ETF AI MVP(적극)'와 'ETF AI MVP(중립)' 펀드는 시장 국면을 판단한 AI 시그널과 로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식 및 채권, 대안자산에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AI인베스트먼트스트라티지(Investment Strategy)본부의 AI 모델과 미래에셋생명의 자산배분 노하우가 결합된 전략으로, 단순 아웃소싱이 아닌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진화하는 AI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변액펀드들은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

셋생명 변액펀드 ETF AI MVP(적극)의 경우 올해 9월 15일 기준 누적수익률이 61.8%를 기록했다. 동일자 기준 ETF AI MVP(중립)의 경우 누적수익률 29.5%를 기록했다.

ETF AI MVP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수익률만 아니라, 운영회사 연간 보수율이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고객은 목표 수익률 달성과 동시에 효율적 장기 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

위탁한 미래에셋생명 AI혁신&변액운용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의 ETF AI MVP펀드는 고객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우수한 성과를 제공해 변액보험의 안정적 수익률에 기여하는 똑똑한 펀드”라며 “앞으로도 고객 최우선의 관점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을 지키며 고객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주형 기자 gh471@

생필품 50% 할인·추석 선물 반값 혜택

카드사, 추석 맞이 행사 풍성

카드사들이 추석 명절맞이 혜택 경쟁에 나서고 있다. 명절을 맞이해 장보기와 선물 구매, 무이자 할부와 같은 혜택뿐 아니라 특정 카드 이용 고객을 겨냥한 9월 한정 이벤트도 잇따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비씨카드의 대형마트·슈퍼마켓 추석 선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삼성카드 링크(LINK)를 등록한 고객이 이달 말까지 트레이더스에서 15만 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8만원 이상 결제 시 4000원 할인을 지급한다.

슈퍼마켓 이용 고객을 위한 혜택도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는 전단 행사상품 및 특정 품목을, 롯데슈퍼에서는 주차별 대표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3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비씨카드 고객 역시 추석 선물 세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씨카드는 이달 24일까지 현대백화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추석 선물 세트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과 할인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마트·편의점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이달 24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반값에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25일까지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CU·세븐일레븐에서는 각각 20%, 10% 할인을 지급한다. 이달 30일까지 주요 업종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으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 곳도 있다.

NH농협카드는 이달까지 가맹점 대상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이달 27일까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